

# 한국 멜로영화 '빈자리' 메우는 일본영화



**‘너의 취장...’ ‘빛나는’ 등 줄지어 개봉  
한국 멜로 실종에 日영화서 위로 받아  
‘나비잠’ 투자자 못찾아 일본서 제작**

일본 영화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진원지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영화제에서 상영된 일본영화는 총 41편으로, 전체 300편 중 가장 많았다. 유키사다 이사오,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가와세 나오미 등 일본 대표 감독들의 신작들이 대거 선보였다.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나라타주’는 고교 교사와 과거 제자 간의 복잡미묘한 사랑을 세밀한 터치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외톨이 소년과 시한부 소녀의 사랑을 다룬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쓰키카와 쇼 감독)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영화제 전부터 극장 좌석이 매진됐고, 주연을 맡은 일본의 ‘국민 여동생’ 하마베 미나미가 부산을 찾아 환대를 받았다. 이런 열기는 극장가로도 이어질 조짐이다. 오는 25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너의 취장...’은 메인 예고편 공개 3일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빛나는’은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고의 포토그래퍼였지만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가 영화의 음성 해설을 만드는 초보 작가와 만나 다시 희망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12일 개봉한 타임슬립 소재의 멜로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미키 다카히로 감독)는 8만 명을 불러모으며 다량성 영화 1위를 기록 중이다. ◇ “日 멜로, 세밀한 감정 묘사”로 공감...제2의 ‘너의 이름은’ 노려 그동안 일본영화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매년 500편 이상 개봉되지만, 10만 명을 넘긴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일본영화는 지난해는 559편이 개봉됐지만, 전체 관객 점유율은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졌다. 최근까지 468편이 개봉돼 총 672만명을 동원, 점유율이 3.8%로 경종 뛰었다. 올 초 개봉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367만명을 불러모으며 흥행대박을 터뜨린 덕분이다. 이를 계기로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일본영화 수입 붐이 일었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일본영화는 수입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마니아층도 있어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면서 “특히 ‘너의 이름은’ 이후 업체들이 앞다퉈 일본영화를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영화는 주로 로맨스 장르가 많다. ‘오겐끼데스카’(잘 지나나오?)라는 대사로 유명한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 이후 비슷한 영화들이 수입됐기 때문이다. ‘러브레터’는 1999년 개봉 당시 140만 명을 동원했고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나 재개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냉정과 열정 사이’(2001·22만명)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2004·43만명) ‘지금 만나러 갑니다’(2005·17만명) 등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운성은 영화평론가는 “일본 로맨스 영화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반영돼 남녀가 조심스럽게 예의를 차리면서 가까워지는 연애담이 많다”면서 “전개는 느리지만,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판타지 요소를 넣는 등 신선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영화 수입사 미디어캐슬의 강민하 팀장은 “일본 멜로 영화에는 사랑과 죽음,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등 한국 관객이 좋아할 만한 정서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 멜로영화는 ‘실종’ 반면, 한국 멜로영화는 범죄·조폭 영화, 스릴러영화에 치여 거의 제작조차 안 되고 있다.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은 감독이 12년 만에 선보인 실사영화 ‘나비잠’도 일본에서 촬영된 영화다. ‘나비잠’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50대 여성작가와 한국 유학생 전애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호와 배우 김재욱이 호흡을 맞췄다. ‘나비잠’을 제작한 영화사 조아의 이은경 대표는 “애초 정 감독이 한국어로 시나리오를 썼다”면서 “그 시나리오를 들고 투자자를 찾으려 다녔지만 다들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떠올렸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배경을 일본으로 바꿔 일본에서 찍었다. ‘나비잠’은 내년 5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개봉된다. 한국 멜로영화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 전성기였다. ‘집속’(1997) ‘편지’(1997) ‘8월의 크리스마스’(1998) ‘동감’(2000), ‘클래식’(2003),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연애의 목적’(2005) 등 명작이 쏟아졌다. 이후 ‘건축학개론’(2012·411만명)과 ‘누대소년’(2012·665만명)으로 흥행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저취를 감졌다. /연합뉴스

# 최시원 반려견 사고 영향? ‘변혁의 사랑’ 시청률 하락

전날 ‘킷캣한 사고’의 여파로 최시원의 코미디 연기에 몰입하기가 어려웠던 탓일까. 2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N 주말극 ‘변혁의 사랑’의 시청률은 2.8%(유료플랫폼)로 집계됐다. 지난 회 3.5%보다 0.7%포인트 떨어진 성적이다. 전날 방송에서는 절없는 재벌3세 변혁(최시원 분)이 좋아하는 백준(강소라의 ‘일갈’에 기내난동 사건과 관련, 스스로 검찰에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최시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변혁 특유의 유쾌한 톤을 유지하며 코미디 연기를 선보였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달라졌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최시원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건이 전날부터 대중을 충격받게 했기 때문이다. 최시원과 그의 가족이 사갔던 최시원의 코미디 연기를 웃으면서 보기가 어렵다는 평이 잇따랐다. 한편, 전날 첫 방송한 SBS TV 토요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청률은 7.5%~7.9%, 8.9%~8.6%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KBS 2TV ‘황금빛 내 인생’ 29.7%, MBC TV ‘밥상을 차리는 남자’는 15회 10.9%, 16회 12.7%로 나타났다. ‘밥상을 차리는 남자’는 MBC 파업 여파로 ‘도둑놈 도둑님’이 결방하면서 2회 연속 방송했고, 16회에서 자체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밥상을 차리는 남자’도 이날 결방이 예고됐다. OCN ‘블랙’은 블랙(송승헌)이 하람(고아라)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리는 모습을 담으며 4%(유료플랫폼)로 자체 최고를 기록했다. ‘블랙’은 OCN과 슈퍼액션에서 동시 방송됐으며, 슈퍼액션 시청률을 합하면 4.4%./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US위클리 선정 SNS 영향력 14위

한국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연예 주간지 ‘US위클리’가 선정한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The Most Influential Celebrities on Social Media)에 선정됐다. US위클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명단은 모두 15명으로, 14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가수 비온세(1위)와 아리아나 그란데(2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위),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12위)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인 가운데 이 명단에 랭크된 건 방탄소년단뿐이다. US위클리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은 올해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30주 이상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2017년 4월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상식 ‘제9회 쇼티 어워드’(Shorty Awards)에서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뽑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 0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5 아침이 좋다                      | 00 MBC 뉴스투데이<br>20 아시아의 전통시장<br>50 마이 리틀 베이비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다크멘터리 3일 스페셜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br>30 달콤한 원수                      |
| 9  | 30 KBS 뉴스   | 00 꽃피어라 달순아<br>40 여유만만         |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br>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0 살림하는남자들 (재)                 | 50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 10 SBS 뉴스<br>25 SBS 생활경제<br>40 KBC 생활뉴스     |
| 11 |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재)<br>50 UHD 한식 (재)                       | 50 마녀의 법정 (재)                  | 45 하하랜드 스페셜                                  | 00 꾸러기 탐구생활<br>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12 | 00 KBS 뉴스 12<br>30 영상앨범 산                                   |                                | 05 문화사색<br>55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 00 SBS 12뉴스<br>50 지식 토크림<br>55 열린공간 토크 Talk |
| 1  |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br>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 50 글로벌 청춘 K-POP으로 빛나다(재)       | 40 드림 주니어 스페셜                                | 55 닥터 365                                   |
| 2  | 50 콘서트 필재   |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 10 사이닝스타<br>40 탈레몬스터<br>50 꾸러기 식스교실          | 00 뉴스브리핑                                    |
| 3  | 30 공감다큐, 사람<br>50 말도발상(재)                                   | 20 TV 유치원<br>50 여유만만           | 20 통일전망대                                     |   |
| 4  | 00 4시 뉴스집중  |                                |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 00 토크콘서트 화통                                 |
| 5  | 00 KBS 뉴스 5<br>10 공감다큐, 사람 (재)<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영상앨범 산 (재)<br>30 VJ 특공대 (재) | 00 MBC 이브닝뉴스<br>40 별별머리 (재)                  | 00 SBS 오뉴스<br>45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br>55 UHD 한식                                      | 30 2TV 생생정보                    | 10 살맛나는 세상                                   |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이야 (재)                        |
| 7  | 00 KBS 뉴스7<br>35 우리말 겨우기                                    | 50 내 남자의 비밀                    | 15 돌아온 복단지<br>55 MBC 뉴스데스크                   | 00 날씨와 생활<br>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
| 8  |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30 글로벌 24<br>55 제보자들           |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br>55 20세기 소년 소녀(재)       | 00 SBS 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생활의 달인     |
| 9  | 00 KBS 뉴스9<br>40 가요무대                                       |                                |  |   |
| 10 | 40 KBS 뉴스라인   | 00 마녀의 법정                      | 00 20세기 소년 소녀                                | 00 사랑의 온도                                   |
| 11 | 10 월요기획<br>(맛있는 나눔, 푸드뱅크)                                   |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10 천년의 전라도                                   |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
| 12 | 00 이웃집 할스 (재)<br>50 생활의 발견                                  | 35 영상앨범 산                      | 05 살맛나는 세상<br>20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br>미래인간 시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br>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br>〈때루 문명기행 1부<br>-쿠스고, 잉카를 품다〉   |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br>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br>10:30 한국기행(재)<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콩나물두부찌개와<br>도라지 고추장불고기〉  |
| 06:00 한국기행<br>06:20 세계테마기행<br>07:00 허준선이 과학쇼<br>07:30 로보카 폴리<br>07:45 출동! 슈퍼월드<br>08:00 당동명 유치원 1~2<br>08:30 플라워링 하트<br>08:45 방귀대장 뽕뽕이<br>09:00 몬카토<br>09:15 소피 루비   | 11:20 세계테마기행(재)<br>12:00 EBS 점오 뉴스<br>12:10 글로벌 가족특집기<br>-한국에 신다<br>12:40 평등채널e<br>12:45 과학 다크 비온드 (재)<br>13:40 엄마를 찾지마(재)<br>14:30 레이디 비고  |
| 15:00 우주탐험가 젯<br>15:15 꼬마기사 마이코<br>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br>15:45 부릉부릉! 블루미즈<br>06:00 엄마 깨우리<br>16:15 두다다공<br>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br>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br>17:15 로보카 폴리<br>17:30 강철소년대 피아로보<br>17:45 호기심 소녀 도트<br>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br>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br>19:30 EBS 뉴스 | 19:50 다문화 고부 열전<br>20:40 다크 오늘<br>20:50 세계테마기행<br>〈불의 땅, 울의 고향 캄차카 1부<br>하늘 그리고 땅이 기다린다〉<br>16:15 두다다공<br>21:30 한국기행<br>〈발길 머무는 섬 울릉도 1부<br>놀며 쉬며 가리다〉<br>21:50 EBS 다크프라이드<br>〈어머니의 강, 메콩〉<br>22:45 엄마를 찾지마<br>23:35 가칠남녀<br>24:25 세상의 모든 범죄<br>24:30 세계의 드라마 〈빅데이터 6부〉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10월 23일(음 9월 4일 癸未) |   |
|----------------|--|---------------------|---|
| <b>子</b>       | 48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라. 72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84년생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거든 속들이 점검해 두어라. 행운의 숫자 : 27, 66           | <b>午</b>            | 42년생 다수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54년생 잠 못 이루면 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정황이다. 68년생 모순과 단처 투성이다. 78년생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90년생 함께한다면 발전적인 힘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72 |
| <b>丑</b>       | 49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으나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61년생 실재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3년생 소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리라. 85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감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행운의 숫자 : 65, 21        | <b>未</b>            | 43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55년생 획기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67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91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9, 85          |
| <b>寅</b>       | 50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자신의 의도하여 왔던 바를 거리낌없이 다양하게 구사해 보자. 74년생 요절 복통할 노릇이다. 86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00, 07       | <b>申</b>            | 44년생 뻔히 알면서도 쉽게 밀려들어 가고 있는 형세이다. 56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하기 십상이니 만일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68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80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27          |
| <b>卯</b>       | 51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63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87년생 배려하다 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04       | <b>酉</b>            | 45년생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57년생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이 무난하다. 69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81년생 대세를 관망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64, 89        |
| <b>辰</b>       | 52년생 이전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국제라고 볼 수 있으나, 64년생 마음에서 먹다보면 자신의 손바닥 보듯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88년생 많은 차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12 | <b>戌</b>            | 46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8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70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82년생 근거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4, 84       |
| <b>巳</b>       | 53년생 구유일모의 기회라 할 수 있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자. 65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77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89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나야 할 바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79     | <b>亥</b>            | 47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이 되는 과도기이다. 59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71년생 재판을 살리 위주로 바라보고 조응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37, 10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